

국제뇌교육협회 발행 뇌교육 온라인소식지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 *IBREA News* 2009.1-2

뇌교육 글로벌 뉴스



해외 100개국에 지부를 두고 뇌교육의 연구, 보급, 인증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뉴욕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 뇌교육 세계화를 이끄는 중추기구 [www.IBREA.org](http://www.IBREA.org)

**[IBREA- USA] 미국 뉴욕시, 1월 8일 ‘뇌교육의 날’ 지정**



유엔본부가 자리한 전 세계 글로벌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시가 1월 8일을 '뇌교육의 날 (Brain Education Day)'로 선언하였다.

뉴욕시 미셸 블룸버그(Michael R. Bloomberg) 시장은 국제뇌교육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뇌교육 연구 및 보급이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뉴욕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1월 8일을 '국제뇌교육협회 뇌교육 데이(IBREA Brain Education Day)'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글로벌중심도시인 뉴욕시의 이번 ‘뇌교육의 날’ 지정으로 한국의 뇌교육은 뉴욕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주 한인신문에도 뇌교육 전면기사가 잇따라 실리고 뇌교육 공개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는 등 뇌교육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뉴욕시에는 초중고 교사 400명 이상이 뇌교육 교사과정을 이수했고, 60개 이상의 학교에 뇌교육이 도입되어 학생들의 인성 개발과 학습능력 및 창의력 증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카톨릭 봉사단체, 학대받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단체와 같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뇌운영관리사(Brain Management Consultant, 국제 뇌교육 전문강사)들이 무료로 뇌교육 클래스를 진행하는 등 사회복지증진에서도 뇌교육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뇌교육은 5단계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건강 및 행복증진, 집중력 및 창의력 함양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대인관계 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는 300개의 시니어 센터 및 학교에 뇌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IBREA- UN] 유엔본부서 정신건강 주제로 뇌교육 세미나 개최**



2008년 6월 한국 뇌교육 세계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국제뇌교육협회 100개국 창립 및 국제뇌교육컨퍼런스 개최 이후, 유엔에서 한국 뇌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지난 1월 8일 유엔본부 제 7 컨퍼런스룸에서 "인류 정신건강을 위한 뇌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엔 경제사회국(DESA), 유엔정신건강 NGO위원회, 한국뇌과학연구원, 국제뇌교육협회의 공동 주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주목을 받은 것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2009년 주제인 "세계 공중 건강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와 책임의 실행(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and commitments in regard to global public health)"을 위한 첫 문을 여는 학술행사였기 때문.

이날 세미나는 세계 정신건강문제, 정신건강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방안, 뇌교육의 건강증진 역할, 성공사례와 프로젝트 실행이라는 4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세스 니크힐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지원협력국 소장, 세계적인 뇌신경학자인 엘커닌 골드버그 뉴욕대(NYU) 교수, 베스트셀러 <The Brain That Changes Itself(기적을 부르는 뇌)>의 저자이자 뇌심리학자인 노먼 도이지 박사(콜럼비아대), 야니스 웨첼 유엔NGO연합체 CONGO 정신건강위원회 의장, 덴 파벨 일리노이 대학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고, 세미나의 주최자인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협회장이 '뇌 활용을 통한 전 지구적인 행복창조운동'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승헌 협회장은 "인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글로벌 리더들이 변화해야하고, 그 변화의 핵심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해답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한 유엔관계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 **[IBREA-UN] 국제뇌교육협회, 유엔글로벌컴팩트 가입**



한국 뇌교육의 세계화를 이끄는 국제뇌교육협회(협회장 이승헌)는 16일 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 1999년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의 10대 원칙준수를 통해 기업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끈 국제네트워크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 BT 등 세계적으로 5,1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08년 11월 기준으로 143개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뇌교육협회를 설립해 해외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시가 '뇌교육의 날'을 제정하는 등 뇌교육은 인간 뇌가 가진 근본가치를 회복하고 시민의 건강을 높이는 체험적 교육방법론으로 미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국제뇌교육협회는 이번 유엔 글로벌컴팩트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노력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뇌교육협회(IBREA)는 작년 6월 유엔본부에서 10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국제뇌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한 뇌교육 국제단체로, 한국에서 시작한 뇌교육을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뇌교육을 통한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세계화”를 모토로 한국 뇌교육의 학술활동 교류 및 보급,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맨하탄에 세계화 본부를 두고 해외 100개국에 뇌교육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뇌운영관리사(Brain Management Consultant)란 두뇌전문가를 양성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국제뇌교육협회는 뇌운영관리사를 관리하고 세계 각국에 파견해 교류하는 일도 지원한다. 특히, 해외서 활동하는 뇌운영관리사들은 유엔자문기구 한국뇌과학연구원이 개발한 다양한 뇌교육컨텐츠를 탑재한 'iBrain'이란 휴대용 두뇌관리기기를 갖고 활동하면서 21세기 두뇌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IBREA-JAPAN] 일본뇌교육협회, 유엔환경연합서 감사장 받아**



10억그루 나무심기 포스터



희망의 나무심기 모금 저금통

일본사회에서 한국의 뇌교육 보급을 총괄하는 일본뇌교육협회(IBREA-JAPAN)가 유엔환경연합(UNEP) 케냐 본부로부터 “10억그루 나무심기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준 것에 대한 인증서와 감사장을 받았다. 시민단체가 유엔기구로부터 직접 감사장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 내 뇌교육 보급활동이 시민건강증진 차원을 넘어 환경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뇌교육협회의 이번 환경운동은 뇌교육을 통한 유엔의 건강, 교육, 환경활동에 적극적인 기여를 모색해 온 이승현 국제뇌교육협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본뇌교육협회 이외에도 일본 내 200여개 이르는 단월드 뇌교육센터를 비롯해 전국의 스타지오가 함께하면서 지구사랑 캠페인 운동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모금액은 작년 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환경연합 본부에 전달되었다.

UN의 환경계획기구인 유엔환경연합은 일본뇌교육협회의 뜻 깊은 동참에 감사해하며, 아프리카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나무를 심어주는 ‘TUNZA’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했고, 이를 통해 케냐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무심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장과 인증서를 보내왔다. 일본뇌교육협회는 뇌교육 국제보급기구인 국제뇌교육협회의 일본지부로 지난 2008년 3월 공식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성인뇌교육전문기관인 일본단월드와 함께 건강, 교육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일본 내에서 한국문화를 알려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